

광주 공군탄약고 부대 인근 이전 착수

공군비행장 이전 물 건너 가나

현 탄약고 일대 광주 새 개발축 부상

1975년 서구 벽진동 일대에 들어선 공군탄약고 이전 계획은 이미 지난 2006년 확정된 바 있다.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착수는 계속 뒷전으로 밀렸으며, 올해 비로소 예산까지 확보돼 본격적인 부지 매입 및 이전이 이뤄지게 됐다. 인근에 상무지구가 들어서면서 탄약고는 ‘도심 화약고’가 됐으며,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광주시와 탄약고 이전협약에 들어가 1997년 기본협약서까지 체결했으나, 이전 대상지의 주민의 반발로 포기하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다.

그러나 소음피해 소송 등이 계속되면서 국방부는 공군탄약고 이전 부지인 도호마을은 물론 활주로 인근 마을까지 모두 매입하기로 결정해, 올 안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설정, 부지 매입 등의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. 이에 따라 인근 마을의 소음 피해 민원이 해결될과 동시에 광주 중심부에 남아 있던 대규모 부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 또 서구·광산구 주민들이 수년째 요구해 오고 있는 공군비행장 이전은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.

◇주민 반응=주민들은 이 같은 국방부의 결정을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다. 당초 도호마을과 이웃한 신야촌·신영·문촌마을 주민들은 ‘탄약고 이전반대 위원회’를 결성하고 반대 투쟁에 나선 바 있으며, 도호마을에 탄약

고가 들어설 경우 소음피해는 물론 지가 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. 주민 이모(65)씨는 “도호마을과 함께 매입해 줄 경우 협상할 용의가 있다”며 “하지만 주민들과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”이라고 말했다.

따라서 매입 과정에서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. 170여 가구 4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 마을주민들은 주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사를 짓고 있다.

◇현 공군탄약고 부지 활용=서구 벽진동의 공군탄약고가 이전될 경우 이 일대 땅은 ‘금싸라기’로 바뀔 전망이다. 탄약고와 군사보호시설구역 등 모두 200만㎡ 이상의 땅이 개발대상지로 바뀌고, 인근에 상무·금호·풍암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가 존재하며, 교통면에서도 사통팔달로 광주의 중심에 해당된다.

특히 이곳은 도시기본계획상 ‘시가화 예정용지’로, 택지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. 이 때문에 시가 추진중인 문화복합단지 후보지중 1순위로 꼽힌다. 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오는 2015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부지에 아시아문화랜드·문화산업단지·관광산업단지·공공시설단지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. 최근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도 있으며,

■공군탄약고 이전 부지



최근 신규 건립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야구장 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.

시 관계자는 “일단 탄약고가 이전하는 것이 확정된 이상 이곳 일대에 대한 개발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◇광주공군비행장 이전 장기화? =소음피해 소송과 함께 광주 공군비행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수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.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탄약고 이전 및 그 주변 부지 매입으로 인해 공군비행장의 이전은 사실상 장기화되고 남을 공산이 크다. 선거 때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으로 이전 등이 공약으로 등장했지만,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장 이전이 쉽사리 결정되지 못했으며, 이번 탄약고 이전 추진은 단기간 내 공군비행장 이전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. 따라서 광산구나 서구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른 법정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. 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하의도 배롱나무

DJ 묘역 지킨다

내달 1일 3그룹 이식

고(故)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면에서 자란 배롱나무가 고인의 묘역에 옮겨 심어진다.

26일 신안군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유족 측으로부터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하의도 배롱나무 3그루를 이식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다음 달 1일 서울로 보낼 예정이다.

현충원에 이식될 배롱나무는 하의도 후광리와 운곡리에 있는 10년생으로 나무 모양이 아름답다.

군 관계자는 “배롱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이 김 전 대통령의 삶과 닮아 이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”고 말했다.

/신안=조완남기자 wncho@



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 철거

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일째인 26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·전남도당은 주승용 도당 위원장 등 당직자와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분향소에서 ‘9일장 탈상 분향식’을 갖고, 9일 간의 분향소 운영을 마쳤다. 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“눈물 많고 부끄러움 잘 타신 분 독재정권 탄압이 강하게 만들어”



다시 미를 말한다

1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

지난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 영역에 남겨놓은 발자취는 매우 크고도 뚜렷했다. 지근거리에서 김 전 대통령과 함께 호흡했던 이들의 기억을 통해 원대했던 그의 정치적 이념과 인간적 면모, 후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본다.

비자금 등 각종 음해성 루머에 평생 고통

서거 직전까지 민주주의 후퇴 괴로워해

고(故) 김대중 전 대통령(DJ)의 삼우제가 지나고 26일 만난 DJ의 ‘복심’ 박지원 의원(목포)은 매우 수척해져 있었다. 입원과 투병, 서거와 국장 이후까지 ‘영원한 비서실장’으로서 DJ의 마지막 가는 길을 수행하며 한 달이 넘도록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.

박 의원은 지난 1983년 DJ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‘김대중 내란음모사건’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각계의 탄원에 가까스로 미국 망명길 오른 후 지인의 소개로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.

매일 새벽 DJ가 가족 이외의 가장 먼저 만난 사람으로 기록될 정도의 성실함으로 확고한 신뢰를 얻은 박 의원은 1997년 정권교체로 초대 청와대 공보수석이 된 이후 문광부장관, 정책기획수석, 정책특보, 비서실장 등으로 국민의 정부의 시작과 끝을 DJ와 함께 했다.

26일에도 박 의원은 김영삼·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예방, 병문안과 영결식에 참석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DJ가 남긴 ‘화해와 용서’의 유지를 이어갔다. 초인적인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DJ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다.

우선 DJ에 대해 박 의원은 “눈물과 정이 많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탈한 성품이었다”고 회고하며 “독재정권의 탄압이 오히려 김 전 대통령을 더욱 강인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”고 밝혔다.

박 의원은 “김 전 대통령께서 이회호 여사와 함께 종종 ‘목포의 눈물’ 등 옛 노래를 부르거나 TV 연속극을 보며 눈

물을 보았다”며 “그 모습이 마치 옛고 제처럼 선명하다”고 회고했다.

호남과 DJ에 대해 박 의원은 “지역차별의 설움 속에서도 민주화를 갈망했던 호남 민심은 언제나 김 전대통령에게



박지원 (당시 국회의원회 총재 특별보좌역) 의원이 지난 1997년 11월27일 경북 왜관역 대통령 후보 유세장에서 언론 보도와 관련,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헌안을 보고하고 있다. <광주일보 자료사진>

용기를 불어넣어준 응광로 같은 존재였다”며 “이러한 호남 민심은 결국 수평적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됐었고 DJ는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”고 강조했다.

그는 “국민의 정부 시절, 김 전 대통령은 광명 인사를 통해 호남 차별의 그림자를 지우려 노력한 것은 물론 수시로 호남의 현안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었다”고 말했다.

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화해를 위한 DJ의 각고의 노력도

있지 못한다는 박 의원은 “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하셨다”며 “김 전 대통령께서는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는 등 서거 직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”고 증언했다.

박 의원은 DJ가 민주주의 후퇴 기조에 대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했다.

박 의원은 “어느 날 김 전 대통령께서 ‘민주주의가 반석 위에 선 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다. 민주주의는 역시 투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같다’고 토로했다”며 “이러한 김 전 대통령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지난 6·15 기념 행사에서 밝힌 ‘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’이라는 발언이다”고 말했다.

비자금 등 각종 음해성 루머와 관련, 박 의원은 “김 전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리며 괴로워 하셨다”며 “김 전 대통령의 일기에 각종 음해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

있으며 이는 각종 음해에 대한 심적 고통을 나타낸 것”이라고 울분을 토했다.

“나에게 김 전 대통령은 삶 그 자체”라고 밝힌 박 의원은 “지난 20여년 동안 김 전 대통령을 모셨듯이 이회호 여사를 성심성의껏 모실 것”이라며 “김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난다면 서거 이후 남북 화해, 국민 통합 등 평생 헌신했던 노력들이 성과를 맺어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싶다”고 눈시울을 붉혔다. /임동욱기자 tuim@




사랑을 만들어가는 50명이 있습니다

참고심의회 : 1005-0400

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-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!

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.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.

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“사랑”이라는 신념으로 이평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걸어온 지난 50년.

그 마음, 그 신뢰감, 그 사랑 그대로 50년, 100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

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.

국제약품

http://www.kukjepharm.co.kr

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

국제-에이스 큐텐 연질캡슐



비타민 A, C, E의 보급

- 동맥비동, 혈관 수축기 병용, 병후유해 제거, 폐하리 노년기
- 눈의 건조감과 궤양, 야맹증
-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(미, 주근깨)의 완화, 인공눈물, 비출혈 예방
-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기시 다발 증상의 완화
- 아토피, 피부염, 수족저관 수족관종

아연의 보급